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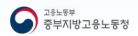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일시: 2025. 10. 30(목) 10: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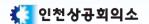
■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3층 그랜드 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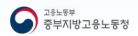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일시: 2025. 10. 30(목) 10: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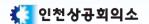
■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3층 그랜드 볼룸











2025년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 산업 포럼

-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I 목적

-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간 상생 협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원을 위한 자동차업종 대상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함
- 이에, 관내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관리와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논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인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표 개요

○ 일 시 : 2025. 10. 30(목), 10:00 ~

○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3층, 그랜드볼룸

○ 주 최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 주 관: 인천상공회의소

皿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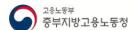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09:30	30'	접수 및 등록							
09.30	30		_						
10:00	20'	사전행사							
-		■개회 및 인사말씀							
10:20	15'	현황보고 — 2025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10.20	15	■ 김남형 선임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							
4005	251	Session 1 :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산업 현황과 미래차 전환 대응 전망							
10:35	25'	■ 민규량 박사(인천연구원)							
44.00	251	Session 2 : 미국 관세정책 현황, 대미관세 리스크관리 및 실무대응 전략							
11:00	25'	■ 문경진 관세사(관세법인 진솔)							
11:25	10'	휴 식							
9		좌담 및 토론							
		■ 좌 장 : 최태훈 소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35	40'	■ 토론자							
		- 장용환 부회장(인천모빌리티연합) - 함지현 실장(인천상공회의소)							
		- 김철기 팀장(삼화이앤피) - 민규량 박사(인천연구원)							
12:15	05'	사진촬영 및 오찬							
12:15	90'	폐회 및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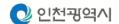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현황보고

2025년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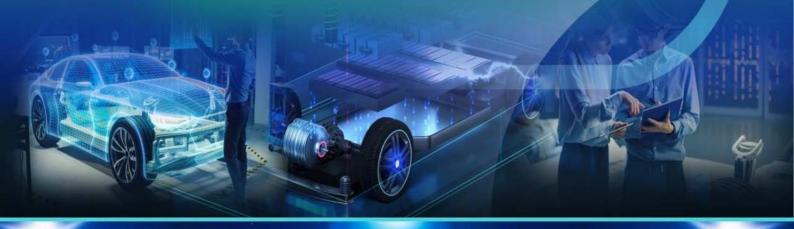
김남형 선임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25년도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4년 업종별 상생협약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우수(A등급) 달성

HPT HANK PLATU Co.,LTD.

"(本) 하임프라토"

ESG컨설팅참여를통한 원청사의 탈탄소 요구대응

㈜한일프라튜의 원청사(英, 에드워드)의 탄소배출 관련 ESG체계 도입의 요구에 다응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인천상의(상생)-(사)IMU ESG컨설팅 체계적지원

인천상의(상생)~(사)IMU의 "상생 거버넌스"를 활용한,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ESG컨설팅의 결실



(원)에드워드차-(협)한일프라튜 **`ESG경영공시후**,

매출액 3배 증가

ESG공시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납품물량 증대로 공장 증설 및 '23년 대비 매출액 3배 증가 예상



"인천 상생협약 우수사례"

Best Cases

상생협약거버넌스를활용한 미래차 전환 시대의 대응 우수시례

성과

인천지역의 상생협약 거버넌스를 활용한 미래차 전환 시대 속,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의 선제대응 기반 조성

목차

I.

사업개요

1.2025년사업추진계획

2. 추진체계 및 사업목표

II.

세부사업별 추진성과

1. 상생일자리도약장려금

2. 상생일자리채움취업지원금

3. 상생환경개선 지원사업

🚺 인천상광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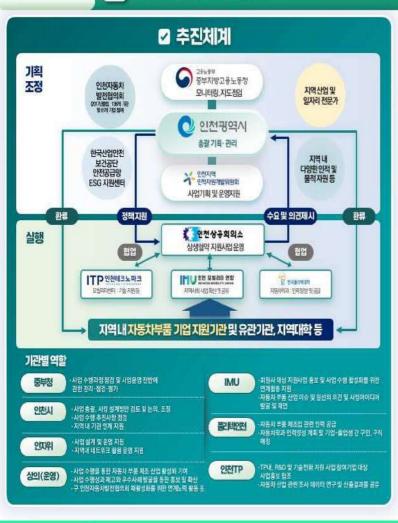
CHAPTER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사업 개요

1. 추진체계및사업목표

2. 2025년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정량목표: 155명고용창출 및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

구분	창출목표	지원내용
상생일자리도약장려금	60명	입사일(24, 10. 1,~'25.9, 5,) 가준, 만35세~만 59세 대상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1명고용시, 최대 1,200만원 장려금 지급
상생일자리 채움취업지원금	95명	입사일('24, 10, 1,~'25, 9, 5,) 기준, 3/6개월 근속한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자원금 지원
상생환경기선 지원사업	-	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휴가비/건강검진비/고숙련형성 정려급), ESG컨설팅 지원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함계	1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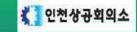
정성목표

2 II	R표 내용
빈 일자리 해소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청년층 인력 유입 유도 및 빈 일자리율 감소에 기여
근로자 소득보전	저임금 산업 종사자들의 자금 형성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생활 안정화 기여
근로환경개선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 기회비용 절감
지원대상 확대	청년 초급기술자-고령자 및 장년 숙련공까지 광범위한 연령별, 직무별 근로가 포괄 지원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원화를 통해 고용시장 약자 보호
기업 경쟁력 강화	ESG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의 공동 대응 역량 강화

. 사업개요

2025년 사업추진 계획

추진과제



4

☑ 추진체계

<mark>비전</mark> 인천자동차 산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의 가치 정착

추진목표1 임금구조및

장기근속

증진노력

도약 징역금(기업지원)

도구 등어려면 1급하면? - 자동차 산업 고용활성화를 위한체용정하금 지원 - 기초 기술자 숙편공을 대성으로 자동차산업 인력 유출 미연 방지 가야

채울 취임금(근로자 지원)

자동차 산업 인력의 정기근속 유도 및 퇴사율 경소에 기대 정기근속 구간별 지원군 지권(최대 200만원)

고숙련 형성 장려금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목표2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전문인력 부자로 만한 고숙력 형성이 장려금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명성 및 확보 고속편 인력과 신규 임사 인력 간의 경력인계기대 산업인전 확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의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확보

복지(휴가비, 건간건진비)지원 사인을 통한 기안 생사력 증대기대

추진목표3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 대용을 위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상생 ESG컨설팅 및교육실시

지속가능정영을 실천정착하기위한 ESG정영기초전단및 솔루션 지원

자동차 산업 "상생형력" 포럼 개최 - 미래차 전환 사태에 글로벌 사장경쟁이나 대용 전략을 모색하는 "삼생 협력포함"개최

우수시례 발굴 및 '싱생 선순환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상생선순환구조 구축을 병한 중 - 장기적

2025년사업계획

거버넌스

상생 이해관계지 소통 실무협의회 자동차 산업구조 대응 전문 자문위원회



역 시업 운영및 평가에 대한지원 및자문,자동차부품산업 이젠다 발굴 및 해결방안도색동 지역 내지동차업종 관련산-학-연및 합단체등 교통 제반 2~4호 이상



60명

만36세 이상 ~ 59세 이하 신규 취업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 소재 자동치부품 제조 기업 ('24.10.1,-'25.9.5, 기간 내,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기업) ①지동치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약기업 현력사 한정) ②우석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다

임금 수준 : 최저임금 기준 100% 월 60만원 = 최대 540만원 지원 또는 X担Q社 최저임금 기준 120% 월 100만원 = 최대 900만원 지원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 : 최대 5명

지원금액

월 60만원(540만원) ~ 100만원(900만원) (기업지원 : 월 단위 지급/초대 총7회)



지원대상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24.10.1.-'25.9.5.기간내,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기업)

지원요건

근로조건 : 주 30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지워극액

최대 총 200만원: 3/6개월 근속 시 구간별(100만원/100만원) 지원, 근로자가 3개월/6개월 근속 시, 최대 총 2회 200만원



고숙련형성 장려금 50명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의 고숙련 형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원금액 인원당 최대 30만원

복지자원 휴가:150명.건강검진:100명

위험성 평가진단 및 컨설팅 10개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근로환경 및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ESG교육 및 컨설팅 지원 15개사, 4회, 조사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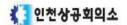
심화 컨설팅 5개사 '24년도 참여기업 대상 연계 컨설팅 실시

기초·진단 컨설팅 10개사 ESG컨설팅 참여기업발굴하여 기초진단 컨설탕수행

교육 컨설팅 4호 2차~N차협력사대상 ESG관련교육훈련실시

기업 의견 청취(조사) 1회

ESG관련 인지도 및 기업의 대용 전략등 기초조시



CHAPTER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추진성과



Ⅱ. 세부사업 추진 성과

인천상공회의소

상생 일자리 도약장려금

60명

'24. 10. 1. ~ '25. 9. 5. 기한내만35세 이상 ~ 59세 이하 신규 취업자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소재 기업

지원요건

임금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시 1인 월 60만원, 연 최대 540만원 수준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1인 월 100만원, 연 최대 900만원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 ·최대 5명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연 720만원)



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연1,200만원)

성과및시사점 രാ

성과: 116% 달성

고용창출: 23개사/70명 (협력사비율: 100%)

거버넌스를활용한체계적기업모집및중탈자관리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의고용여건개선을통한신규인력 채용시장활성화기대

수혜기업사후관리를통한본사업의기대효과분석추적 관찰필요

상생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95명

'24. 10. 1. ~ '25. 9. 5. 내, 인천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조건 ·주 30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금 지급

- 3개월 근속시(100만원)

6개월 근속시(100만원)

3 성과및사사점

성과: 100% 달성

고용창출: 28개사/95명 (협력사비율: 100%)

신규근로자의고용유지율확보를위한근속단계별대상 별지원시업필요

거버넌스를활용한중복수혜자시전방지를통한지원대 상명확화실시

중탈관리를 통한 사유, 사례별 DB구축을 통한 연계 유사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성과
	고숙련형성장려금	50명	42명
복지	건강검진비	100명	39명
	京가비	150명	150명
컨설팅	ESG컨설팅	15개사	13개사
인크공	위험성평가컨설팅	10개사	11개사
격차	문화생활지원	5회	5회
해소	실태조사	1회	1회

목표달성률 및 협력사 비율 84%/100%

39%/95%

131%/87%

86%/92%

110%/81%

100%

100%







시사점

탈탄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ESG컨설팅 확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지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고도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권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가치 정착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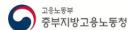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Session 1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현황과 미래차 대응 전망

민규량 연구위원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현황과 미래차 전환 대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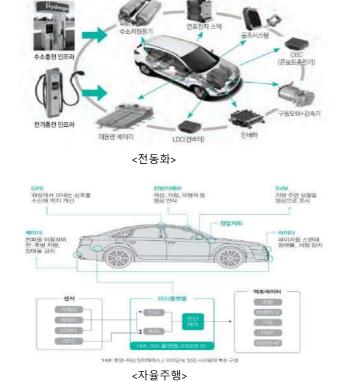
경제환경연구부 민규량 연구위원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 미래차의 특징은 전동화, 커넥티드, 자율주행으로 구분





<커넥티드>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미래차-파워트레인 전동화 전망(2020~2030)



출처: BCG분석. 참조: FCEV=fuel-cell electric, BEV=battery electric, PHEV=plug-in hybrid electric, HEV=full hybrid electric, MHEV=mild hybrid electric.

반올림으로 인해, 특정연도의 백분율 충합이 100%가 아닐수 있음. 12018, 2019, 2020 판매는 실제 데이터임. 2021년 이후 데이터는 BCG예측자료임. 2 예측에는 대형(heavy-duty) 반을 제외한 자동차, SUV 및 기타 모든 경량 승용 차량이 포함됨.

자료: BCG Analysis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세계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9										
구분	'19	'20	'21	'22	'23	'24	'25	CAGR			
세계시장	43,051	53,900	67,483	84,488	105,780	132,436	165,810	25,2			

[국내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19	'20	'21	'22	'23	'24	'25	CAGR
국내시장	41,018	52,380	66,889	85,418	109,078	139,293	177,877	27.7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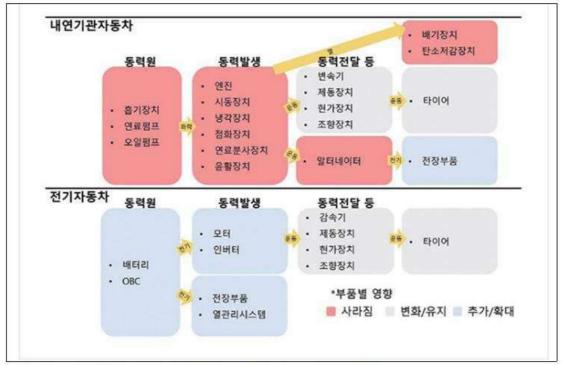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CAGR(%)
7=#	합계	64.5	1,548.9	6,565.2	11,204	41.0
글로벌 (억달러)	제한 자율주행(Lv3)	63.9	1,234.8	3,456	4,905	33.6
(작글다)	완전 자율주행(Lv4)	6.6	314.1	3,109.2	6,299	84.2
7.0	합계	1,509	36,193	153,404	261,794	41.0
국내 (억원)	제한 자율주행(Lv3)	1,493	28,852	80,753	114,610	33.6
	완전 자율주행(Lv4)	15	7,341	72,651	147,183	84.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9년),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자율주행차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 부품 간소화 및 교체로 인해 내연기관 부품사 영향 상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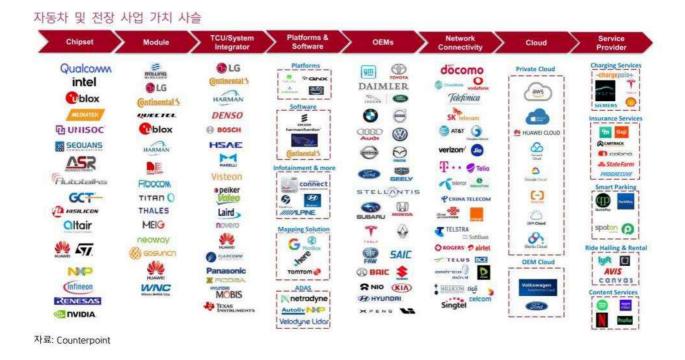


자료: 김호건(2022)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른 자동차부품 산업의 영향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다양한 기술 요소의 통합으로 인해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이 증대 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성이 예상



1. 미래차 산업 동향 및 전망



자동차 산업 구조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음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3),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미래: M.I.L.E 재인용(원자료: Sustained-Qu ality(2019.01), 한국무역협회)



◆ 인천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인천광역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통 제조 기반 & 미래 모빌리티 허브로의 도약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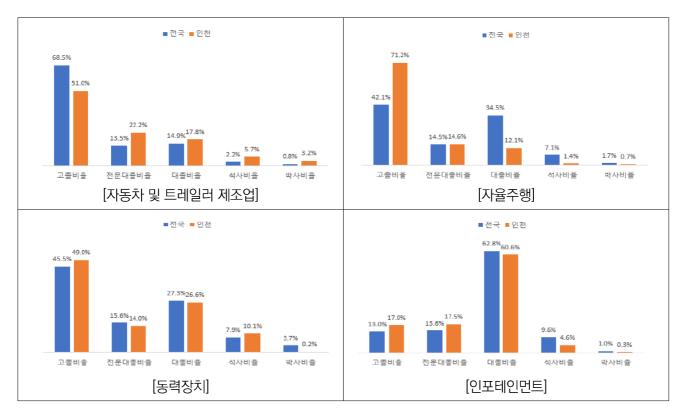


◆ 인천시 자동차 산업 인적자원현황

	TIS	= 1	74	ΤI	ᆉ	71	λ π =	= 01101	ITUI 7	E1 A
지역	자동	1^5	신	자	실	강	소프트	트웨어	1102	드니스
분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명)	(%)	(명)	(%)	(명)	(%)	(명)	(%)	(명)	(%)
전국	119,818	100.0%	205,024	100.0%	64,381	100.0%	148,270	100.0%	24,273	100.0%
_ 烁	81	0 <u>.</u> 1%	9,401	4.6%	127	0 <u>.</u> 2%	105,355	71.1%	14,229	58 <u>.</u> 6%
부산	4,166	3.5%	9,422	4.6%	5,666	8 <u>.</u> 8%	2,136	1 <u>.4</u> %	503	2.1%
대구	6,394	5.3%	5,590	2.7%	1,312	2.0%	1,336	0.9%	343	1 <u>.</u> 4%
인천	3,959	3.3%	13,448	6.6%	3,856	6.0%	1,085	0.7%	379	1.6%
광주	2,277	1.9%	6,430	31%	507	0.8%	854	0.6%	494	2.0%
대전	19,568	163%	2,636	1.3%	3,781	5.9%	657	0.4%	24	0.1%
울산	1,631	1.4%	7,048	3.4%	291	0 <u>.</u> 5%	4,354	2 <u>.</u> 9%	841	3 <u>.</u> 5%
경기	28,047	23 <u>.</u> 4%	76,001	37.1%	10,641	16.5%	26,239	17.7%	5,154	21.2%
강원	1,097	0.9%	1,157	0.6%	125	0 <u>.</u> 2%	661	0.4%	304	1.3%
충북	3,222	2.7%	20,879	10.2%	998	1.6%	785	0.5%	72	0.3%
충남	17,482	14.6%	13,967	6.8%	7,589	11.8%	759	0.5%	320	1.3%
전북	5,484	4.6%	1,509	0.7%	2,695	4 <u>2</u> %	332	0.2%	313	1.3%
전남	218	0.2%	878	0.4%	2,864	4.4%	382	0.3%	120	0.5%
	12,751	10.6%	19,623	9.6%	15,885	24.7%	374	0.3%	454	1.9%
경남	13,440	11.2%	17,013	8.3%	8,044	12.5%	1,491	1.0%	681	28%
제주	0	0.0%	21	0.0%	0	0.0%	1,471	1.0%	42	0.2%

자료 : 통계청(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MDIS(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재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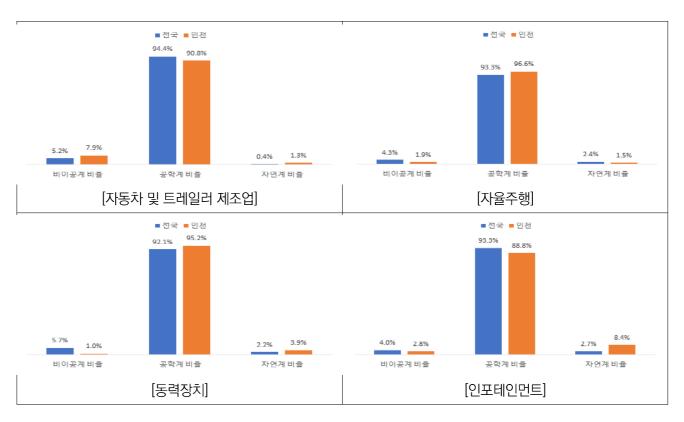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MDIS(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재가공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 : 통계청(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MDIS(2021),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재가공



◆ 인천시 규모별 자동차 제조 관련기업 현황(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기준)

		10인 미만	10인~49인	50인~99인	10021-29921	300인 이상	전체
-	이끌니	4,182	950	116	59	9	5,316
범 자동차	인천시	78.7%	17.9%	2.2%	1.1%	0.2%	100.0%
부품 관련산업	전국	62,344	16,208	2,273	1,257	286	82,368
CCCB		75.7%	19.7%	2.8%	1.5%	0.3%	100.0%
	OIFLLI	395	150	35	21	3	604
전통	인천시	65.4%	24.8%	5.8%	3.5%	0.5%	100.0%
자동차 제조업	저그	8,774	4,102	995	572	101	14,544
2000 E	전국	60.3%	28.2%	6.8%	3.9%	0.7%	10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재가공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 자동차 부품산업과 전기차 산업

- 전기차 생산의 확대는 부품군별 사업축소, 수익성 악화 또는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 부품군별 전망은 크게 긍정적 / 중립적 영역 / 부정적 영역으로 구분
 - 이들 부품군에 따라 전기차 보급 및 내연기관 차량 축소의 영향이 차별적

긍정적 영역

- 배터리·모터·인버터
- 공조시스템
- 경량화 소재
- 자율주행관련 부품
- 충전인프라 관련 부품

지속적 성장 예상

중립적 영역

- 조향장치
- 현가장치
- 제동장치
- 범용부품 (내장재, 타이어 등)

1

성장제한 요인 없음

부정적 영역

- 엔진 관련 부품
- 변속기 관련 부품
- 오일류, 연료탱크
- 전달장치 관련 부품

1

사업영역 축소 위험

자료(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2018),자동차부품산업국내외 동향 및 경쟁력분석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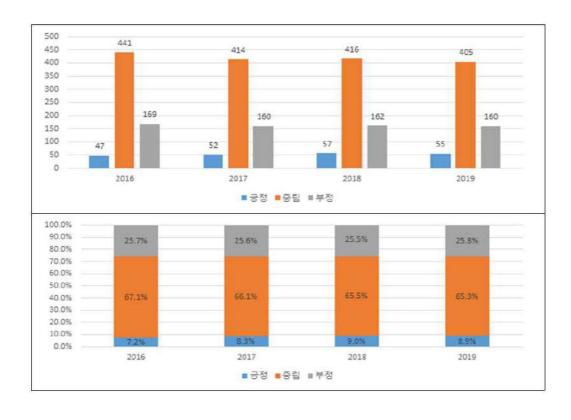
- 분석자료: 전국사업체조사
- 전통 자동차 산업 분류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C)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범 자동차 산업 분류 기준 : 한국 표준산업분류 해설에 따라 구분
 - 분류코드는 KSIC의 세세분류를 활용하여 구분

부품군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KSIC 세세분류(10차) ¹			1	① 소재/가공: 고무패킹류 제조업(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긍정적 부품군	자동차용 발전기, 교류기, 간전지, 컨버터 및 인버터 등 베터리 관련 부품 포함 플라스틱 제품 제조선, 알루미늄 페린 가공, 스티로돔 등 경랑화 부품 포함 공조시스템 관린 부품 포함 LCD, 무선 동신장비, 운영체제 및 시스템 관리 포함 포함	발포 성형제((22259), 알 주조업(2432 ② 단위부품: 액 (26224), 그 제조업(2730 ③ 모듈: 기타 등 제조업(2651) 기타 광하기 제조업(2811, 제조업(2811, 제조업(2814 선(29172), ④ 원제품/서비스 어 개발 및 공	2층정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2 등 제조업(22251), 기타 블라스트 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 10 최시정치 제조업(26211), 전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 1), 측진지 제조업(28202)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달 9), 해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달 네 제조업(27309), 전편기 및 발전 2), 방전별교육 안정기 제조업(26 자동차용 선품 전기점치 제조업(26 자동차용 선품 전기점치 제조업(26 1), 기타 전기 변환경치 제조업(26 1),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급업(58222), 무선 및 위성 통산 보 제공업(63991), 전기-전자공학 설 제공업(63991), 전기-전자공학	발 발포 성형재품 제조업 (1/24212), 일루미늄주물 지부품 실정기판 제조업 (9),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1/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축량기구 제조업(27211), 1/1 제조업(28111), 벤업기 8113), 메너지 저정정치 (1/19), 공기 조화정치 제조 (30332) 업당8221), 응용 소프트웨 업(61220), 데이터베이스	중립적 부품군	-교무, 절물 제조, 차림용 문짜, 범피, 타이어, 조명 기구, 제동창치, 에어맥, 서스팬선, 조환화치 및 현가장치, 차체 등 범용 부품 포함	제조업(22192), 그 의 기타 1차 정강 제조업(24199), 기타 비증금속 압인, 압출 및 만신 채형 제조업(24229), 선정주된 주조업(24311), 동주본 주조업(24320), 일상 급속 글조 구조재 제조업(2513), 분일 아금제품 제조업(25911), 지동차용 급속 압행제품 제조업(25991), 자동차용 급속 압행제품 제조업(25995), 그의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25999) (2 단위부품: 그 의 기타 전구암비 제조업(2590), 추형 및 금형 제조업 (23994), 자동차 재목요 부품 제조업(26000), 자동차 제목요 부품 제조업(260000), 자동차 제목요 부품 제조업(2711), 속도계 및 최언계기 제조업(2711), 속도계 및 최언계기 제조업(2711), 속도계 및 최언계기 제조업(2711), 소송청비용 조명정치 제조업(28903), 그스템계인 제공용 기계 제조업(271), 자동치용 산품 환경 제조업(2800399) 원 전체통시하나 그 의 기타 특수목역용 기계 제조업(26000), 체제 및 특정차 제조업(2001), 자동차용 산품 부명 제조업(200399) 원 전체통시하나 그 의 기타 특수목역용 기계 제조업(26000), 체제 및 특정차 제조업(30001), 자동차구조 및 장치 변경업(300002), 트레일리 및 세미트레일리 제조업(30003), 자전거 및 한자용 차량 제조업(300001), 지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0002), 트레일리 및 세미트레일리 제조업(30003), 자전거 및 한자용 차량 제조업(3199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72129), 제품 디자인입(73202)
		부정적 부품군	·엔진, 내연기관용 오일 필터, 변속기, 기어, 클러치, 구동 축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 포함	③ 모듈: 기어 및 동력 액체 여과기 제조임	전달장치 업(29175),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제조업(29142), 기체 여고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가기 제조업(29174), 당치 제조업(30331)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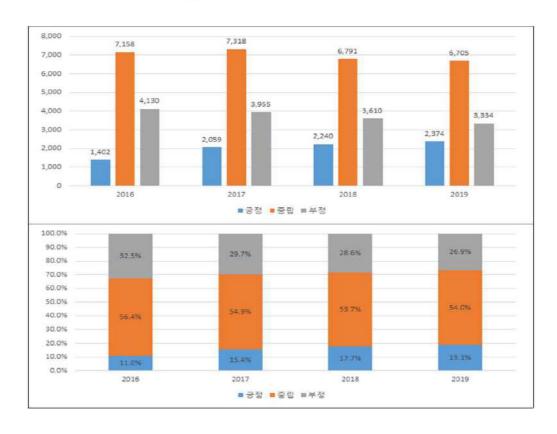


◆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전통 자동차 부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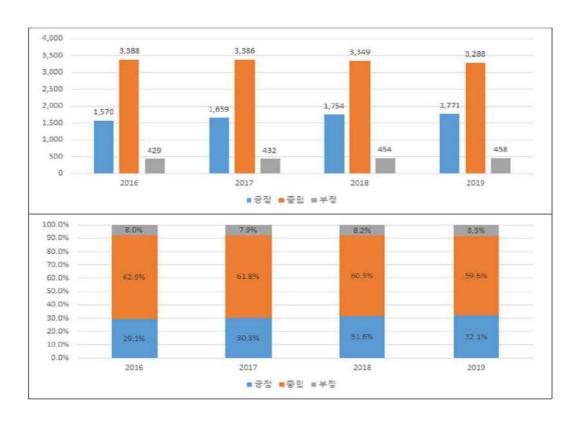
◆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종사자 현황 (전통 자동차 부품산업)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광의의 자동차 부품산업)





◆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종사자 현황 (광의의 자동차 부품산업)



2. 인천시 자동차 산업 현황



◆ 전국, 인천 부품군별 비교(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기준)

	전통 자동차	다 부 품산 업	범 자동차 부품산업		
	전국	인천시	전국	인천시	
긍정부품군	 5.9% 수준 (1위) 모듈 (종사자수) 2.3만 명 (기업체수) 721개 	• 8.9%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1.3만 명 • (기업체수) 55개	 37.3% 수준 (1위) 서비스 (종사자수) 58.0만 명 (기업체수) 3.2만 개 	 32.1% 수준 (1위) 서비스 (종사자수) 2.1만 명 (기업체수) 1.7천 개 	
중립부품군	 68.2% 수준 (1위) 모듈 (종사자수) 15.4 만 명 (기업체수) 8,370개 	 65,3% 수준 (1위) 모듈 (종사자수) 0.7만 명 (기업체수) 405개 	 55.4% 수준 (1위) 소재/가공 (종사자수) 50.6만 명 (기업체수) 4.8만 개 	 59.6% 수준 (1위) 단위부품 (종사자수) 2.8만 명 (기업체수) 3.3천 개 	
부정부품군	 25.9% 수준 (1위) 단위부품 (종사자수) 8.9만 명 (기업체수) 3,177개 	 25.8% 수준 (1위) 단위부품 (종사자수) 0.3만 명 (기업체수) 160개 	 7.3% 수준 (1위) 모듈 (종사자수) 11.9만 명 (기업체수) 0.6만 개 	 8.3% 수준 (1위) 모듈 (종사자수) 0.7만 명 (기업체수) 45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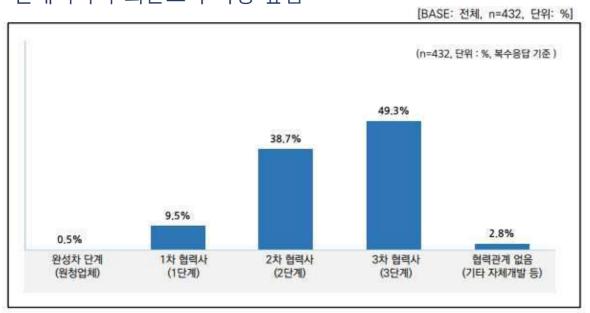
◆ 인천시 자동차 산업 부품군별 현황 및 전망

-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에 따라 위기에 봉착한 기업은 좁게는 약 160개, 넓게는 약 450개이며 종사자는 약 3,300명~6,700명으로 추산
 - 특히 인천시는 전국 대비 부정적 부품군 관련 기업의 비율이 높기때문에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품 산업의 타격이 타 시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중립부품군의 경우, 단위부품의 비중이 큰 것에 비해 전기차 전환에서 단위부품 관련 기업 수요는 감소 추세여서 이들 기업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
 - 전국의 경우 소재/가공의 비중이 크고 단위부품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반면, 인천의 경우 중립부품군에서 단위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쟁도 매년 치열해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들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
- 긍정부품군의 경우, 타시도에 있는 부품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
- 전국의 긍정부품군 비중은 2019년 기준 37%인데 반해 인천시는 32% 수준
- 전기차시대로의 전환에서 전국 평균보다 전환이 느린 상황

3.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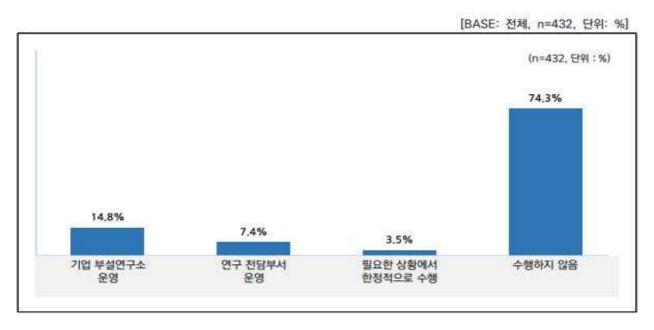
• 부품기업은 2차 및 3차 협력사가 많고 최종수요처와 매출비중이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가장 높음



3.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 수행률이 20%대로 매우 낮아 기업들의 연 구수행 여부에 따라 이원화된 정책도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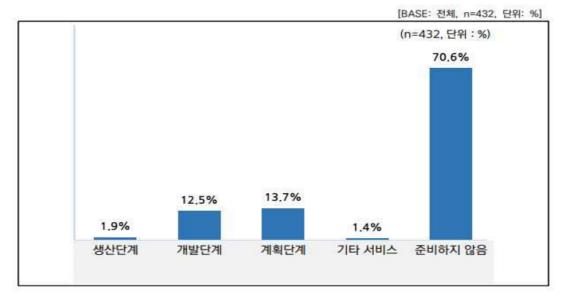


자료: 인천테크노파크(2022), 2022년 인천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전환 실태조사

3.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미래전환 준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전환의 시 급성 인식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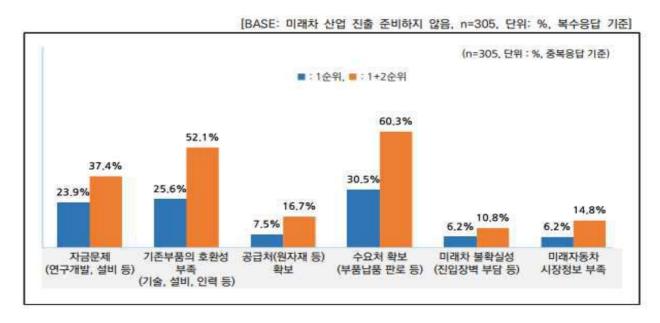


자료: 인천테크노파크(2022), 2022년 인천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전환 실태조사

3.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미래차 산업 진출을 준비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불확실성이어서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및 기술표준화, 호환성 확보가 시급



자료: 인천테크노파크(2022), 2022년 인천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전환 실태조사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1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의 골자 및 특징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1.)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 미래자동차산업 현장설명회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계획(산업부)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인천시는 미래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별 중점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그림 1-2]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의 추진 전략별 중점과제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선도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부품기업 혁신 성장 지원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인증평가센터 구축	■ 기술개발 혁신사업	■ 기술구조·부품해석	■ 디지털 제조 혁신	■ 통합지원센터 구축
 특화기술 개발지원 	 기술 R&D 지원 	 기술전환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미래차 육성조례 제정
■ 시험인증평가 지원	 R&D 장비 구축 	• R&D 공동기획 지원	 유니콘기업 육성 	• 부품기업 협의회 설립
 뉴 플레이어 발굴 	■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전환 전문교육 	• 전장 부품기업 특화	■ 실태조사/정책연구
 특화육성 전략 수립 	■ 기술개발 챌린지	• 소재부품 국산화	■ 대·중소기업 협력	• 뉴거버넌스 운영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2.1.9.), 인천시, '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 비전 제시 p7 재구성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원목표는 2026년에 2021년 대비 지원건수를 10배가량 증가시킴으로써 매출, 고용을 확장하겠다는 것임

[표 1-5]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의 목표

구분	2021년 (침체기)			증가율 (2021년 대비)	
기업 수(개사)	628	712	885	41%	
매출 (억 원)	142,411	153,092	175,165	23%	
고용(명)	21,951	24,805	30,512	39%	
미래차 전환지원(건)	12	112	192	1,50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2.1.9.), 인천시, '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 비전 제시 p7

4. 국내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 현황 (인천시)

전년 대비 38% 수준 <u>(단위 : 천원)</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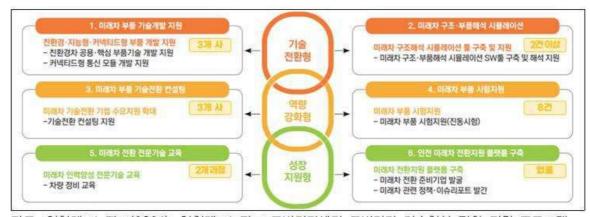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00,000	700,000	2,000,000	2,600,000	1,000,000
	소계	522,200	527,300	1,545,000	2,110,000	674,000
	R&D 지원	360,000	400,000	720,000	1,120,000	180,000
직접비	기술전환 촉진	27,840	29,400	620,000	600,000	280,000
	사업화 지원	96,500	60,000	-	180,000	94,000
	지원체계 구축	37,860	37,900	205,000	210,000	120,000
	소계	177,800	172,700	455,000	490,000	326,000
운영비	인건비	160,000	160,000	320,000	340,000	200,000
	운영비 및 간접비	17,800	12,700	135,000	150,000	126,000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2024

4. 인천시 전기차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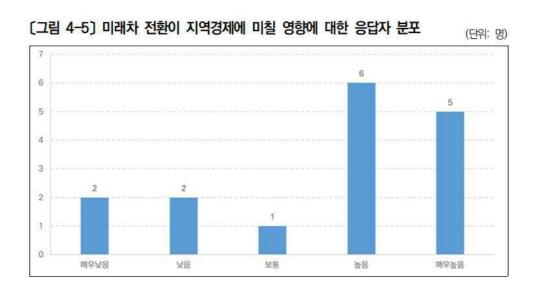
• 2024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방향성은 맞게가고 있으나 종합계획 목표치에는 크게 못미치는 상황



자료: 인천테크노파크(2024),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센터 모빌리티 기술혁신 전환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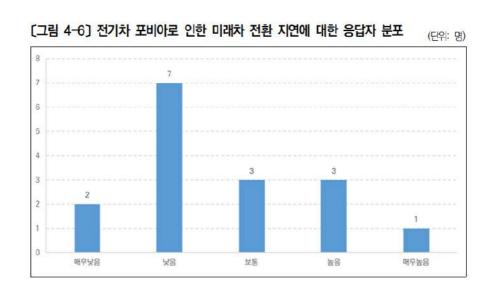
 미래차 전환은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전환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아 당분간 내연기관차와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



5. 정책평가-전문가 설문결과



 연이은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 등과 별개로 미래차 전환 지연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다만 단기간의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5. 정책평가-전문가 설문결과



[표 4-2] 미래차 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1,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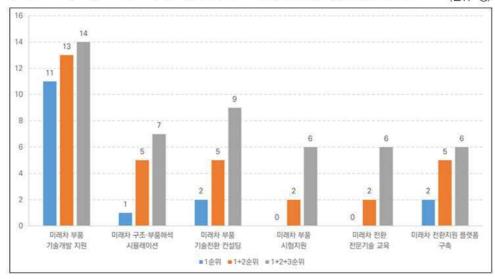
응답자 소속	1순위	2순위
대학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드론, 로봇과의 연계 및 확대 적용 방안 필요 미래차 관련 신제품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OEM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영업 확대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확보, 제조업 인력 구조를 탈피하여 핵심 부품 개발 역량 보유가 시급 AI 파급에 따른 위기 진단 및 이를 활용한 고품질 고기능의 제품 출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국 소부장 기업과의 등동적 상생 비즈나스 추진	기존 GM향 기업들의 수요처 다변화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 관련 안전성 강화 사업 다각화,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한 위기관리 제3국가(캄보디아, 페루 등) 시장 확대 및 한국 내 인구 소멸 대안을 위한 인력수급 로봇이나 UAM 관련 산업 교육을 통하여 전환할 기회 제공
지원기관	필요 기술에 대한 분석과 지원(기존 기술을 활용 하여 전환이 빠른 방향으로의 선택이 필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을 탐색하여 미래차로의 전환 가능 유무 및 의지 확인보유 기술 탐색을 통한 전환 대상 확인) 48V 운영체계로 전환되는 부품 및 모듈 개발 SW 분야 투자 및 기술개발 부품 경량화와 관련하여 경량 소재 활용과 공정 최적화, 최적 설계 능력이 필요	선도기업(대기업) 연계를 통한 미래차 적용 이이 템의 발굴과 개발 연구개발, 생산 생태계 지원시업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성 SM정보통신, 보안 등) 인력 확보, 진입 기업들을 위한 고급 인력 육성 방안 필요 부품 생산 시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발자국을 경감하기 위한, 공정 효율화, 친환경 소재 활용, 수율 항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기업	 미래차 SW, SDV에 대한 준비 기술 및 자금 확보 현재 운용 중인 전기차 부품 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등을 통해 현행/미래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 동등 성능 이상의 개발 여부등에 관한 실증적 테스트 	 치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준비 수요처 확보 미래차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다각적 부품/ 안프라 개발 검토 및 테스트(예; 차 출고 후 충전소 -정비소-배터리 교체 등 여정별 필요 요소기술/ 부품개발)

5. 정책평가-전문가 설문결과



 테크노 파크 수행 정책 중에는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으며 두번째로 기술전환 컨설팅 정책 등을 통 한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성과 확산, 공유가 중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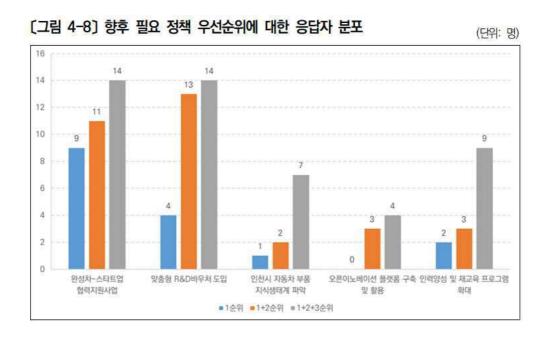
[그림 4-7] 테크노파크 수행 사업 정책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응답자 분포 (단위: 명)



5. 정책평가-전문가 설문결과



 향후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으로는 완성차-스타트업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맞춤형 R&D 바우처 도입, 인력양성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응답도 높게 조사



6. 정책의 한계점 및 향후 지원방향



현황 및 정책	기업 및 전문가 설문내용		향후 지원 방향
(현황) 완성차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밸류체인 변화 (산자부) 수요-공급 협력 모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미래차 연구 투자 어려움 (전문가) 완성차-스타트업		수요처와 연계한 부품기업 R&D 지원방안 마련
(현황) 기술요소 통합으로 공급망 사슬 재편 예상 (산자부) 중소·중견기업 공동 R&D 투자 우대	(기업) 2·3차 협력사 비중이 높고 낮은 연구비율 (전문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	>	중소-중견기업 협력 연구 지원체계 마련
(현황) 부품 간소화 및 교체 등으로 인적자원 변화 예상 (인천시) 정비사 교육 중심으로 인력양성	(기업) 기존부품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개발 어려움 (전문가) 마래차 기본 이해 및 능률 항상을 위한 교육 제공이 필요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 양성프로그램 설계





6. 인천시 미래차 전환 대응 방안



- 정책안 1 : 완성차업체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펀딩 기획
 - 안성차업체들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이를 지원할 경우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기획
- 정책안 2 : 인천시 자동차 부품 지식 생태계 파악
 - 특허 데이터, 거래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지식 생태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술사업화 및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



- 정책안 3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 지식재산권 거래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가 이러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 또는 제휴를 통해 제공
- 정책안 4 :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시행
 - O CEO/경영진 대상 교육부터 엔지니어/연구개발 인력 대상 교육, 현장 기술인력 교육, 신규취업희망자 및 청년 대상 교육,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까지 전방위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6. 인천시 미래차 전환 대응 방안



• (사례)현대자동차의 제로원 펀드(ZER01NE FUND)

구분	내용			
정의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펀드 프로그램			
	• 제로원 컴퍼니빌더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내 초기 기업을 지원		
종류	•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외부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 올해는 소프트웨어 중심 지동채(SDV)와 스마트펙토리,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인광지능(AI) 등 4개 주제 총 14건의 협업프로젝트에서 스타트업을 모집		
	• 제로원 플레이그라운드	크리에이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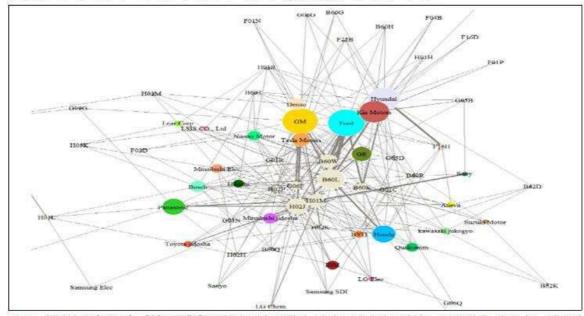
구분	내용	
기업명	테라클(연구지사: 인천광역시)	

테라클은 버려지는 폐플라스틱(PET)을 자동차 산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화학적 공정을 개발하는 기업임. 현대자동차와 테라클은 차량 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폐루프 생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상호 협력 중임.

자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제로원 (ZERO1NE) 벤처스: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에 의한 곳







자료: 송영화 외(2019), 친환경 융합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략: 전기자동차의 <u>특허분석과</u> 비즈니스 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2-5, pp.780-804

6. 인천시 미래차 전환 대응 방안



(사례) 인천대 산학매칭 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DigO



자료: INDigO 공식홈페이지(검색일: 2024.9.1.)



(예시) 대상별 미래차 산업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예시)				
CEO/ 경영진	교육내용	미래차 산업변화 트랜드, 기업전환 전략. 정책 활용방안 등			
	교육기간	분기별 1회, 연간 워크숍 1회 등			
	교육기관	인천 테크노파크 + 대학별 산학협력단(전문가 초청)			
	교육내용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SW개발, 센서 신호처리 등			
엔지니어/ 연구인력	교육기간	단기 집중과정 2주. 심화과정 3개월 등			
	교육기관	관내 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 등과 연계			
	교육내용	전기차 정비기술, 배터리 시스템관리, 전장부품 품질관리 등			
현장 기술인력	교육기간	기본과정 1개월, 심화과정 3개월 등			
	교육기관	관내 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 등과 연계			
	교육내용	미래차 기초이론, 핵심부품 이해, 정비실습, 품질관리 실무 등			
신규취업 희망자/청년	교육기간	6개월 전일제 과정, 2년 단기학위과정 등			
	교육기관	폴리텍대학 미래차 관련 학과 등과 연계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내용	미래차 부품 생산기술, 스마트 공정관리, 전기전자 기초 등			
	교육기간	주말반 3개월, 야간반 6개월 등			
	교육기관	인천인자위,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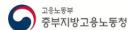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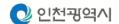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Session 2

미국 관세정책 현황, 대미 관세 리스크 관리 및 실무 대응 전략

문경진 관세사 (관세법인 진솔)









인천상공회의소

미국 관세정책 현황, 대미 관세 리스크 관리 및 실무 대응 전략

2025. 10. 30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O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03 실무대응 전략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D2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D3 실무대응 전략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美 트럼프 관세 정책 Time line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발효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 추가 부과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 부과 (USMCA 충족 제품 유예)	3월 4일
철강 ·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3월 12일
자동차 · 자동차 부품 25% 추가 관세 부과 (자동차 부품 5월 3일부터 부과)	4월 3일
보편관세(10%) 부과	4월 5일
상호관세 부과(국가별 차등 부과)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시행 [07월 09일까지 (중국 제외)] 對 중국 상호관세 125%로 인상	4월 10일
미·중 관세협상 타결(중국 상호관세 기존125%에서 10%로 90일간 변경)	5월 14일
철강 · 알루미늄 추가 관세 25%에서 50%로 상향 조정	6월 4일
상호관세 발효시점을 7/8일에서 8/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 서명	7월 7일
구리에 5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8월 1일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 발표(대한민국 상호관세율 15%)	8월 7일
목재 및 가구에 관세 부과(목재:10%, 가구: 25%~30%)	10월 14일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확대 예정

▋ 트럼프 국가별 관세(캐나다,멕시코, 중국)

301조 관세

- 대상국가: 중국
- 적용시점: '18년 7월 ~
- 대상품목: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마스크, 핵심광물 등
- 관세율: 7.5~100%, 품목별 상이 (전기차 100%, 흑연 25%,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 50% 등)
- 근거법: 1974년 무역법 301조
- * 미국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 또는 미국 상업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복 대응의 일환으로 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를 가동할 수 있음

펜타닐 관세

- 대상국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 적용시점 및 관세율
- (캐나다, 멕시코) 3월 11일부터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캐나다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25%관세 부과
 - * 캐나다의 경우 08월 01일부터 35%로 상향
 - * 멕시코의 경우 08월 1일부터 30%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90일간 유예 中
- ② (중국) 2월 4일부터 10%, 3월 4일부터 10%가 추가되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총 20%의 관세 부과
- 근거법: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 *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발생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용하기 위해 대통령이 수출입금지, 경제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미국 관세정책 현황



▮美 트럼프 보편 · 상호 관세점책 타임라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한국		총25% 관세부과 (7/8까지유예)	1,2차관세기술 협의진행	한미 고위급회의 및 3차 기술협의	8/1일 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발효 예고	韓-美 관세 협상 타결 상호관세 15% 자동차/부품 관세 15%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시기 미정)
중국	펜타닐 관세 추가 10% (총20%)	총 145% 관세 상향 (7/8일까지 유예 <mark>제외</mark>)	90일 간 대중 관세 30% 대미관세 10% 합의	중국: 희토류 공급 미국: 중국학생 미국 허용 합의		9일 간 대중 관세 30% 미관세 10% 합의 연장
영국		총10% 관세부과 (7/8까지유예)	미국산 제품시장 개방 피력	자동차 10%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최예국대우 관세율 적용		
베트남		총46% 관세부과 (7/8까지유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기업 투 자 확대 피력	환적 제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 수용 피력	베트남 → 미국산 0% 관세 미국 → 베트남산 20% 관세 합의	
모든 국가		보편관세10% 발효,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7/8일 유예)	<u> </u>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 발표 (8/7부터 부과)

미국 관세정책 현황



▮美 트럼프 품목별 관세 요약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25%관세 부과
- □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 X



□ 다른품목별관세와중복되는경우 최우선적으로부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15% 적용 시기 미정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제품



□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함량가치에 50%관세부과



- □ 非철강 非**알루미늄 •** 非구리 부분가치의경우상호관세(15%)부과
- □ 품목별관세의경우실행세욜(MFN 세율 or FTA 세율)에추가하여부과

목재 및 가구



□ 연질목재와제재목에 10%관세 부과



- □ 가구에25%관세부과 (26년부터상향조정예정)
- □ 미국과 협정을 완료한국가에는 예외관세 적용(ex. Eu, 일본:15%)



"향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부과 예정"







CONTENT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2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03 실무대응 전략





■트럼프2.0 자동차 정책

4월3일	4월 29일(완화)	5월3일	6월17일	7월31일
- 미국 이외 국가에 서 생산된 자동차 에 대한 25% 추가 관세 발표	 두개 이상의 관세가 중복되는 경우 자동차/ 부품 관세 우선 적용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차량 에 대한 외국산 부품 관세 완화(2년간 적용) 	- 배터리, 엔진, 섀시 등 자동차 주요 부품에 대한 25% 관세 발효	- 영국산 자동차 연 10만대 10% 관 세 적용 (연 10만대 이상 부터는 25%)	- 韓-美 관세협상을 통한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합의 * 구체적인시행시기는 미정 (현재25% 부과 中)

〈자동차〉

- 1. 추가관세
- 2025년 4월 3일부터 25% 추가 관세 부과
- 2. USMCA관세감면
 - USMCA 적용 자동차의 경우 <mark>미국산 부품의 비율 입증 시</mark> 미국산 부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예시 : 차량 가격 \$10,000 미국산 부품 \$ 5,000 → 나머지 \$ 5,000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적용)
- 3. 허위신고에 대한제재
 - 미국산 비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전체 차량가격 기준으로 25% 관세 소급 적용 (추가적인 벌금 등 별도 적용)

〈자동차부품〉

- 1.추가관세
 - 2025년 5월 3일까지 관보에 명시 후 자동차와 동일하게 25% 관세 부과
- 2. USMCA관세 예외
 - USMCA를 충족하는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 추가관세 유예 中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트럼프2.0 자동차 정책

USMCA 준수 여부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자동차〉

USMCA 미준수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USMCA 준수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 MFN 세율(승용차 2.5%) - 자동차/ 부품 관세 25% * 펜타닐 관세 중복 부과 X	- 非미국산 부품 함량에 따라 관세 부과 [*] 전체 자동차 가격 – 미국산 가격
= MFN(2.5%) + 25%	= (非미국산 가치) X 25%

〈자동차 부품〉

USMCA 미준수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USMCA 준수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 MFN 세율(부품별 상이) - 자동차/ 부품 관세 25% * 펜타닐 관세 중복 부과 X	- (3. 26 발표) CBP가 미국산 부품을 구분하는 별도 절차 마련하기 전까지 유예 - (5.1 업로드) USMCA를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 산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
= MFN(부품별 상이) + 25%	= 0%



▋트럼프2.□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정책

철강 · 알루미늄 관세 인상

□ 2025년 06월 0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

- ▶ 포고문에 따르면 인상된 관세율이 2025년 6월 4일 美 동부 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50% 종가세로 인상
- □ 2025년 5월 8일에 체결된 미국-영국 경제 번영 협정(EPD)조건에 따라 영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25%유지 (단, 7월 9일 이후 EPD 조건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쿼터 설정 가능)
- □ 미국에서 용해/주조된 철강으로 가공된 제품 및 제련/주조된 알루미늄으로 가공된 제품의 경우 면제
- □ 철강 또는 알루미늄 제품에 포함된 비철강ㆍ비알루미늄 성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14257호(상호관세 조치)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해당 관세가 적용

〈포고령 주요 내용 요약〉

포고령	품목	추가 관세율 및 부과 시기
9704	알루미늄	10%('18) → 25%('25.3.12.) → 50%('25.6.4.)
9705	철강	25%('18) → 25%('25.3.12.) → 50%('25.6.4.)
9980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 25% 알루미늄 10%('20) → 25%('25.3.12.) → 50%('25.6.4.)
108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896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947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25.6.4.)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트럼프2.0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정책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관련 주조 • 제련국 기재사항

- □ 용해/제련 및 주조 보고 요구 사항
- 철강 및 철강 파생 제품의 수입 시, 용해 및 주조 국가의 ISO 적용 코드를 반드시 보고
- ▷ 철강 제품: 최초로 용해 및 주조된 국가의 ISO 코드 보고
- ▷ 철강 파생 제품: 최초 용해 국가의 ISO 코드 또는 "OTH"(기타국가) 보고
- ▷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된 제품: "US"로 보고

- * ISO 코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국가별 코드 ex) KR, US, JP 등
-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수입 시 주요 제련국가, 보조 제련국가, 최종 제련국가의 ISO 적용 코드 반드시 보고
- ▷ 주요 및 보조 제련국가 : 최소한 하나는 보고 해야함.
- ▷ 재활용 알루미늄만 사용된 경우 : 보조 제련국가 보고 가능.

(요청 시 제조문서 제출 가능 해야함)

▷ 미국에서 제련 주조 된 제품: "US"로 보고

- * 한국의 경우 알루미늄 제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6.13일(美 동부시간), CBP는 6.28일부로 모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시 제련·주조국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제련·주조국이 미상일 경우에는 200% 고율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새로운 수입신고 지침을 발표
- 필요시, 사후 정정 신고(Post-Summary Correction, PSC) 절차를 통해 제련ㆍ주조국 정보를 업데이트 가능



■트럼프2.0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정책

관세적유 우선순위

- 2025년 6월 4일 부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새로운 적용 우선 순위가 적용
- ① Section23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25%)
- ② Section 232에 따른 철강 · 알루미늄 관세(50%)
- ③ IEEPA에 따른 캐나다 · 멕시코 관세(25%)
- 상기 관세 조치 中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적용 우 선순위에 따라 관세를 납부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펜 타닐 관세(캐나다, 멕시코)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 IEEPA 관세(캐나다, 멕시코)는 부과되지 않음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IEEPA 관세(캐나다, 멕시코)는 부과되지 않음
- 철강 알루미늄을 동시에 포함한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함량만큼 각각 관세가 부과되며,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관세부과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방법 변경

- 2025년 6월 4일 이전
 - ▶ 73류(철강) 및 76류(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 <mark>전체 가치</mark> 를 기준으로 25%관세 부과
- 2025년 6월 4일 이후 (관세율 인상 및 계산 방식 변경)
 - ▶ 철강, 알루미늄 함량가치 부분 → <mark>함량가치를 기준</mark>으로 MFN 또는 FTA 세율 + 50% 관세 부과
 - ▶ 非철강, 알루미늄 부분 → MFN 또는 FTA 세월 + 상호 관세 15% 부과

참고 사항(NOTE)

- USMCA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는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부품은 Section232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및 IEEPA 캐나다/ 멕시코 관세의 <mark>적용대상이 아님</mark>
- USMCA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멕시코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USMCA 충족 물품은 자동차부품 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대상 HS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트럼프2.0 구리에 대한 정책

구리 관세 발표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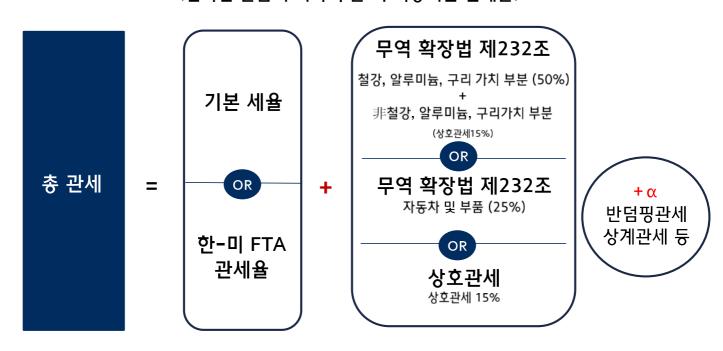
- □ 트럼프 대통령은 반가공 구리 제품 및 구리집약 파생제품에 50% Section232관세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2025.07.30)
- 구리관세 부과 품목
- ▷ 반가공 구리제품: 파이프, 전선, 봉, 시트
- ▷ 구리집약 파생상품: 파이프피팅,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 구리관세는 제품 내 구리 함량에 대해서만 적용 (非구리부분은 상호관세 또는 기타 해당 관세 적용)
- 자동차 및 부품관세가 중복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관세가 우선하여 적용(구리 관세 미적용)
- 구리 원자재(광석, 정광, 매트. 캐소드 등) 및 구리 스크랩은 구리관세(50%) 및 상호관세 제외

※ 참고사항: 미 상무부는 미국의 구리 및 파생제품 수입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관세율의 단계별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망



▋트럼프리.□관세 핵심 요약 점리 - 관세 부과 체계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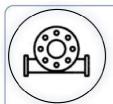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물목별 관세 부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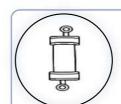


 Pump Retainer의 FOB 단가: 약 5,000원 (가정)

물품	HS CODE	실행세율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Pump Retainer	8413.91	0%	15%	25%	50%

思 관세 계산

- ① 실행세율: 0%
- ② 자동차부품 관세: 25%
- = Pump Retainer 가격 5,000원 X 자동차부품 관세 25% = 1,250원
- *최종관세: ① + ② =1,250원



 Cylinder Assy의 FOB 단가: 약 100,000원 (가정)

물품	HS CODE	실행세율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Cylinder Assy	8412.90	0%	15%	25%	50%

관세 계산

- ① 실행세율: 0%
- ② 알루미늄 함량 가치의 50%
- = Cylinder Assy 가격 100,000원 X 알루미늄 함량 70% X 관세 50%
- = 35,000원
- ③ 非 알루미늄 부분의 15%
- = Cylinder Assy 가격 100,000원 X 非 알루미늄 함량 30% X 관세 15%
- = 4,500원
- *최종관세: ① + ② + ③ = 39,500원



美일반(비틀혜) 원산지규정

- 비특혜 관세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특별무역법이 적유되지 않는 경우에 적유되는 원산지 규정
-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
- 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사용 (섬유의 경우 세번 변경기준 사용)
- 다만, FTA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원산지표시규정과 기존 결정사례 종합검토 및 사안별 판단(CASE BY CASE)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대상 물품이 전적으로 **1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광물 · 식물 · 동물,국적기가 채취 하거나 영해 밖 해저 등에서 채취한 수산물 등, 우주에서 가져온 물품과 이 모든 물품의 부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

2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2개 이상의 국가가 제조공정에 관여된 경우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최종발생한 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원칙

☞ 실질적 변경기준 판단 요소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3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3 연결공정 제품

2개 이상의 국가가 제조규정에 관여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 제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품명, 특성, 용도(name, character, or use)가 변화한 경우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 하지 않거나,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 하고있거나,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거나 (pre-determined),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지 않은 경우



보복관세 부과는 수입신고 되는 제품의 "판정된 비특혜 원산지 "에 따름(수출국 상관 X)

- · 중국산 판정 시 중국산 재료비에 대하여만 부과 되는 것이 아닌 제품 전체금액 대상부과
- ·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더라도 다른 국가 원산지로 판정 시 중국산 부품 및 제품대상 미부과

4 보충적 규정

- ㆍ 간접재료(연료 및 에너지, 도구나 금형, 촉매나 용매 등)는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원재료로서 간주하지 않습니다.
- ・ 간접재료를 포함하여, 소매용 포장, 부속품, 예비부분품은 본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美 일반(비특혜) 원산지규정 - 사례

1 차량용 LED 램프- HQ H304910

정보	
개요	 일본산 또는 미국산 LED, 중국산 기타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멕시코 내 SMT 및 웨이퍼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 조립 및 차량용 LED 램프 완성품 생산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상세 공정	LED와 기타 부품을 웨이퍼 솔더링(Soldering) 및 SMT(Surface Mount Technology) 방식으로 PCB 상에 조립 일부 나사 체결 및 하우징 조립, 검수 및 포장 후 완제품으로 수출
쟁점사항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여부 (중국산 부품이 다수 포함된 완제품이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 CBP는 멕시코에서 수행된 SMT 및 웨이퍼 솔더링 공정이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제조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기능 (조명기능)을 형성하는 핵심 공정이라고 판단함.
- · 이에 따라 PCBA가 조립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종 원산지를 멕시 코로 판정.
- ·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였더라도, 단순 조립 이상의 고도 기술공정이 수행되어 보복관세(Section 301 Tariff) 비적용 대상임.
- ☑ 결론: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 미국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 美일반(비특혜) 원산지규정 사례
 - 2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NY N336183

정보	
개요	 중국산 하판(subtrate, T-너트 포함), 네덜란드산 패브릭, 미국산 접착제·나사·브래킷·라벨, 캐나다산 클립을 사용 모든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후 하판과 패브릭을 접착·적충(laminating) 및 조립 완성된 하판 패널을 자동차 트렁크 하단 보강패널로 미국 수출
상세 공정	멕시코에서 하판과 패브릭을 접착(적충) 및 클립, 나사, 브래킷, 라벨 부착 단순 조립 중심 공정으로, 제품의 구조적 성질은 하판(substrate)에 의해 결정됨
쟁점사항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여부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 대상 여부 포함)

-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하판에 패브릭을 접착 및 부착하는 단순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하판(subtrate) 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됨.
- · CBP는 제품의 핵심 재질 및 기능이 이미 중국산 하판에서 결정되었으며, 멕시코에서의 단순 적충 · 조립만으로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 따라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간주,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
- ☑ 결론: 차량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중국산 원산지로 판정,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임.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D2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Risk

03 실무대응 전략



3

실무 대응 전략



美 관세 대응 - 관세절감 방안

1. HS CODE 조정

구분	설명
목적	HS Code 경합 품목에 대해 CBP E-Ruling을 통해 미국 세관(CBP)으로부터 HS를 사전확정 받아 추가관세 회피
활용 예시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이라도 HS 분류에 따라 추가 관세율 차이 발생
예시 1	플라스틱·고무 (추가관세 0%) VS 자동차 부품 (추가관세 25%)
예시 2	철강 · 알루미늄 (추가관세 50%) VS 자동차 부품 (추가관세 25%)
핵심 포인트	정확한 HS 분류를 통해 추가관세 대상 품목분류 회피 → 추가관세 절감 가능

2. 원산지 조정

구분	설명
목적	핵심 원자재의 공급국 변경을 통해 유리한 원산지 판정 확보 및 FTA 관세혜택 극대화 전략
활용 예시	보복관세 대상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원자재의 공급처를 제3국으로 전환하여 관세 리스크 최소화
핵심 포인트	CBP의 경우 일반(비특혜) 원산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으로 핵심 원자재의 공급처를 제3국으로 전환을 통한 중국산 보복관세 회피 → 보복관세 절감 가능

4

▮美 관세 대응 - 관세절감 방안

3. First Sale Rule 활용

구분	설명
정의	수입자가 미국에 수입하는 물품이 다단계 거래를 거친 경우, 제1 판매 거래(예: 제조자 \rightarrow 중간업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규칙
요건	1. 진정한 판매 (Bona fide sale) 첫 번째 거래가 단순한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 물품 소유권을 이전하는 진정한 매매계약이어야 함 2. 미국 수출을 위한 거래 (Sale for export to the U.S.) 제조자와 중간업자 간의 거래가 미국 수출을 위한 것임이 명확해야 함 3. 거래의 독립성 (Arm's length)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없이 시장가격 기반의 독립적 거래이어야 함
효과	 다단계 수입 거래에서 First Sale Rule을 적용하면, 제1거래(예: 제조자 → 중개상)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사용가능 일반적으로 제1거래 가격은 최종거래(예: 중개상 → 수입자)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부과 기준 자체가 낮아져
	관세액 감소
핵심 포인트	- 관세 절감을 위한 전략적 과세가격 산정 방식으로, 제1거래의 요건 충족과 명확한 문서 증빙이 필수
	- 중간 마진 제외 → 수입원가 절감 효과

"기업은 美 트럼프 점부의 관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실무 대응 전략



■ 미국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및 관세율 확인 방법 (온라인 조회 방법: 코트라(KOTRA)홈페이지 통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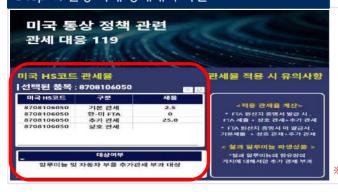


■ 미국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및 관세율 확인 방법 (온라인 조회 방법: 코트라(KOTRA)홈페이지 통해 조회)



- ▶ 화면중간부분 검색(search)란에 HS CODE 6자리 입력 후 검색 클릭
- ▶ 검색하고 싶은 미국 HS CODE 선택 후 "미국 HS CODE별 관세율 조회" 클릭

Step 4. 결정 사례 상세내역 확인



▶ 검색 후 왼쪽 하단에 표시된 HS CODE에 따른 기본 관세, 한-미FTA 세율, 추가관세, 상호관세 확인

※ 해당 자료는 미국 포고령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공



실무 대응 전략



■ 미국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 제도 활용 방법 (온라인 조회 방법: CBP 홈페이지 통해 조회)

Step 1. e-Ruling Requirements 접속



-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 **Trade** 코너 클릭 (https://www.cbp.gov/)
- ▶ 우측에 보이는 "eRuling Requirements"클릭

Step 2. CROSS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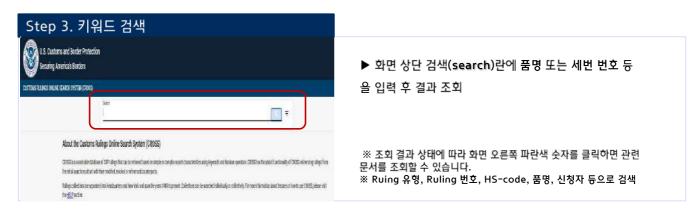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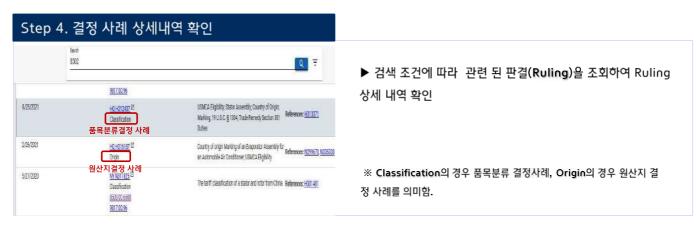
▶ 화면 왼쪽 "Rulings and Legal Decisions" 아래쪽의 'CROSS'를 클릭

****** CROSS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 미국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 제도 활용 방법 (온라인 조회 방법: CBP 홈페이지 통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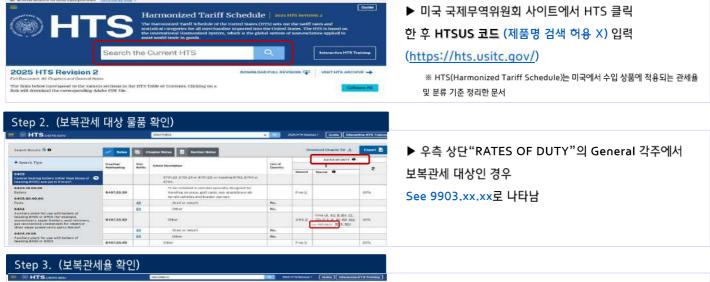


Step 1. (HTSUS 입력)

실무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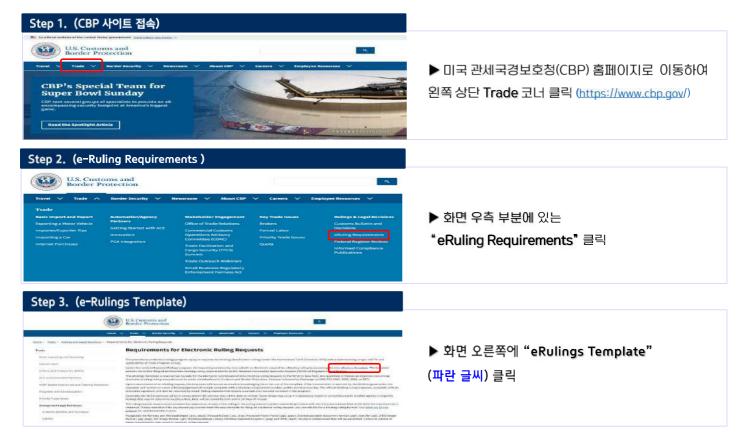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보복관세 확인 방법 (인터넷 확인 :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 ► 검색창에 나타난 9903.xx.xx호를 다시 입력 9903.xx.xx 검색 후 "RATES OF DUTY"의 General 각주에 나타난 보복 관세율에
- * 펜타닐 추가 관세 20% + 상호관세 10%(11/11일 부터 34%) 더하여 부과



▮ 美 윈산지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CBP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실무 대응 전략



▮美 원산지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CBP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美 원산지 사전판점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CBP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 Questions에 따른 기존 판결, 샘플제출 등 질문 작성
- ▶ 신청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입

(ex, 상세한 설명, 주요 용도, 사진, 화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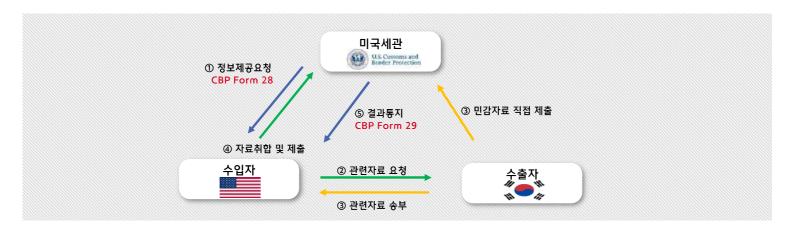
▶ 신청물품과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후 Submit(제출) 클릭







● 한-미 FTA 의 검증 구비서류 (CBP Form 28 & 29)



- ✓ 미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시 수입자를 대상으로 CBP Form 28을 통하여 원산지 증명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
- ✓ 수입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미국세관에 제출.
- ✓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는 자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영문·국문을 병기해서 제출해야 함.
- ✓ 수입자에게 ① 원산지증명서(C/O), ②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③ 원가 자료(Cost Data), ④ 생산 또는 제조관련 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⑤ 주문서 원본(Original Purchase Order), ⑥ 송품장(Invoice), ⑦ 수입대금 결제 증빙자료(Proof of Payment)
 및 ⑧ 수입품의 샘플 등을 요구.
- ✓ CBP Form 28은 FTA원산지 검증만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일반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과세가격 심사 절차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이기도 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JIN5OL Customs & Consulting firm 관세법인 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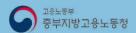
메일 주소: CS@JINSOL.BIZ 전화번호: 070-4680-2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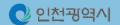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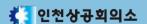
토론문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장용환 수석부회장 ((사)인천모빌리티연합/(주)부천주물 대표이사)







『인천자동차 자동차 제조 산업 포럼』토론문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현황과 대미 관세 대응전략 -

(사)인천모빌리티연합 장용환 수석부회장(부천주물 대표이사)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현장에서 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사)인천모빌리티연합 수석부회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며,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상생협력 포럼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업하여 테슬라모델 Y 차량을 티어다운하는 사업이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핵심 부품의 해체와 기술 분석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천지역 완성차 납품업체 1차 벤더를 대상으로, 2차 및 다수 공급사들의 티어다운을 검토하는 것은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들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물류비와 납품단가의 효율화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가 및 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술 역설계와 정밀 분석을 체계화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금융적 지원(우대금리, 금융펀드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미래차 부품 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천지역의 핵심 산업인 뿌리산업(전통적 부품 제조업)의 지속적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청년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에너지 비용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천은 높은 전력수요 기반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에너지 분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과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차 전환의 도전과 대미 관세라는 새로운 리스크라는 두 가지 파고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이 개별기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거버넌스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모빌리티연합이 협력하여 기술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컨설팅, 공동 R&D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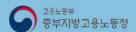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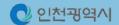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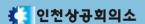
토론문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김철기 팀장 (㈜삼화이앤피 해외·신규영업팀)







『인천자동차 자동차 제조 산업 포럼』토론문 -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 전환과 중소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

김철기 팀장(주식회사 삼화이앤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금속 프레스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삼화이앤피의 재직중인 김철기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의미 있는 주제로 토론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토론회의 키워드인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의 대응 전략"의 주제에 대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 부품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근 탈탄소의 가치 정착의 가치 아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품의 단순화, 경량소재 확대, 공정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프레스 부품 업체들은 그동안 엔진·변속기 등 내연기관용 금속 부품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주요 부품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알루미늄, 복합소재 등 경량 신소재 가공 기술, 고정밀 성형, 다공정 융합 기술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여러 현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신소재 대응을 위한 시험·실증 인프라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규 소재나 공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시험·평가 장비와 실증 환경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자체 구축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공공 연구기관이나 산업단지 내 실증 인프라를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기업이 손쉽게 시험·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매칭 및 공동 R&D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연계해줄 적합한 연구 기관이나 전문인력과의 연결이 미흡합니다.

이에 산업 현장의 요구와 연구기관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상시형 기술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R&D를 추진할 때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완성차 중심의 인증체계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아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완성차사 인증은 대부분 장기간의 평가 절차와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신소재·신공정 기술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중간 인증제도(Pre-Certification)를 운영한다면, 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인 안정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현재 산학연 협력사업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 필요한 과제와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 과제를 선정할 때, 대기업 중심의 기술개발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증형 협력모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R&D와 사업화 전 단계를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인력 전환과 생산문화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기술인력 재배치 지원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양 측면에서의 대응이 병행될 때 비로소 산업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형 산업전환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간 유기적 협력과 실행 중심의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삼화이앤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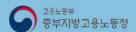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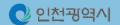
2025년도 인천 자동차 산업 포럼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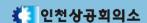
토론문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함지현 실장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인천자동차 자동차 제조 산업 포럼』토론문 - 인천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 방안 -

함지현 실장(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인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천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 귀중한 발제를 맡아주신 인천연구원의 민규량 박사님과 관세법인 진솔의 문경진 관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은 지금 전 동화·자율주행·커넥티드로 상징되는 산업 대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율은 30% 미만, R&D 수행률 또한 20%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완성차 생산거점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인천 자동차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의 협약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ESG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대미 관세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50% 인상 조치에 대한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상공회의소는 ①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산업안전 지원사업, ②근로자 복지 개선 및 장기 재직 지원 프로그램, ③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상공회의소는 단순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간의 실질적 소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직면한 관세·ESG·안전·고용 등 복합적인 산업 리스크를 함께 해결하며, 인천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산업의 변화는 언제나 기업의 혁신과 지역의 협력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파트너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